에이센지 절

조동종(曹洞宗)의 선종 사찰인 에이센지 절은 오모리 마을의 도로 서쪽에 위치한 언덕 중턱에 자리하며 오모리의 중심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1596 년에 창건된 에이센지 절에는 1732 년 이와미 은광을 재해에서 구해냈다는 지역의 유명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시 해충이 서일본 지역 전역의 농작물을 먹어 치우는 바람에 땅이 황폐해져 대기근이 마을 덮쳤다고 합니다. 이와미 은광에서 에도(현재의 도쿄) 막부를 대표했던 다이칸(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의 관리) 이도 헤이자에몬(1672~1733)은 상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수중에 있던 비축미를 풀어 백성들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그는 쌀로 납부해야 했던 지역 마을의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공적은 대체 작물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도는 여행 중인 승려로부터 고구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관할하는 땅 곳곳에 고구마를 심게 했습니다. 이러한 이도의 정책으로 이와미 은광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그의 리더쉽은 널리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행하던 승려가 이도에게 고구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는 에이센지 절은 1800 년에 오모리의 대부분을 태운 화재로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본당은 7 년 후에 재건되었고 1853 년에는 웅장한 산문(사찰로 들어가는 문)이 세워졌습니다. 이 산문의 구조가 도치기현 닛코에 있는 도쿠가와 가문의 제 3 대 쇼군 이에미쓰(1604~1651)의 영묘 문과 닮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다이칸쇼(다이칸이 집무하는 관청)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에이센지 절은 문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당시 주지가 자리에 없어서 명령이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867 년에 도쿠가와 막부가 붕괴되면서 산문은 지금까지 사찰의 입구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